

미국 “북한에 적대 의도 없다…남북협력 강력 지지”

김정은 연설 후 신속 입장…北 대화 촉구 기본방침 강조 美,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심각 인식 유엔 안보리 소집요청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관련,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고 외교에 열려있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며 대북 외교가 미국과 동맹, 주둔 미군의 안전을 증진하는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남북 협력) 한반도에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기본 방침을 한층 분명한 방식으로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은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상황 완화 방지 및 북미간 외교공간 모색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보도에 따라 30일 비공개 대응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회의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소집됐다는 점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 서방 국가가 모두 참여한 것인데 미국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외교적 접근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증강에는 동맹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리는 지난 15일에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당시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은 프랑스와 에스토니아였다고 외신이 전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3월 말 열린 안보리 회의 역시 영국·프랑스·노르웨이·에스토니아·아일랜드 등 유럽 5개국의 요구에 따라 소집됐다.

안보리 회의 소집 요구 전면에 나서는

김정은 연설 후 신속 입장…北 대화 촉구 기본방침 강조
美,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심각 인식 유엔 안보리 소집요청

김정은 연설 후 신속 입장…北 대화 촉구 기본방침 강조
美,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심각 인식 유엔 안보리 소집요청

김정은 연설 후 신속 입장…北 대화 촉구 기본방침 강조
美,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심각 인식 유엔 안보리 소집요청

김정은 연설 후 신속 입장…北 대화 촉구 기본방침 강조
美,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심각 인식 유엔 안보리 소집요청

김정은 연설 후 신속 입장…北 대화 촉구 기본방침 강조
美,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심각 인식 유엔 안보리 소집요청

‘참수에 수류탄까지’ 에콰도르 교도소 폭동에 100여명 숨져

갱단 영역 다툼에 유혈 충돌로

에콰도르의 한 교도소 안에서 28일(현지시간) 재소자들 간에 수류탄까지 동원된 유혈 충돌이 발생해 최소 100명 넘게 숨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 교정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부 과야스쿠 과야킬의 교도소에서 총격과 함께 폭동이 시작돼 현재까지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경찰청장인 파우스토 부에나노는 초기에 확인된 이번 유혈 충돌의 사망자는 30명 정도였으나 교도소 파이프라인에서 추가로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8일 군과 경찰이 교도소 폭동 진압에 나선 지 5시간만인 오후 2시께 모든 상황을 통제했고 일부 무기도 압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폭동에 총, 칼 그리고 폭발물이 동원됐으며 ‘로스 로보스’와 ‘로스 초네로스’ 교도소 갱단 간의 분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도소 내 갱단의 유혈 충돌은 시신 중 최소 5구가 참수된 상태였으며 나머지는 총이나 수류탄에 맞아 숨진 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혈 사태는 교도소 내 라이벌 갱단들이 마약 밀매를 놓고 영역 다툼을



수감된 갱단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한 에콰도르 과야킬의 한 교도소 앞에서 28일(현지시간) 재소자의 가족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별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멕시코의 대형 마약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과 ‘합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과 연관된 조직들로 알려졌다.

항구도시인 과야킬은 남미에서 마약

의 주요 마약 수출 통로다.

에콰도르 군사정보국 국장을 지낸 마리오 파즈미노 대령은 이번 교도소 내 갱단 유혈 충돌에 대해 “초국가적 조직 범죄가 에콰도르 교도소에 침투한 사례”라며 “이들 조직은 두려움을 심어주고 싶어한다”고 우려했다.

에콰도르에서는 교도소 내 대규모 폭동이 끊이지 않아 올해 들어서만 150명 넘는 재소자들이 사망했다.

지난 2월엔 교도소 4곳에서 동시다발 폭동이 벌어져 79명이 숨졌고, 7월에도 교도소 2곳의 폭동으로 27명이 사망하고 경찰 등이 다쳤다.

코로나 규정위반 체포인 척 납치…런던 경찰 여성 살해

올해 3월 영국 런던에서 귀갓길의 여성을 납치, 살해한 경찰관이 코로나 19 봉쇄 규정 위반을 적발해 체포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런던 경찰관이던 웨인 쿨슨(48)은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걸어서 귀가 중이던 세라 에버러드(33)를 코로나 19 규정 위반으로 체포한다면서 수갑까지 채워 납치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29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 과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영국은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봉쇄에 들어가서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을 제

한했고 쿨슨은 규정 위반 단속 업무를 한 적이 있다.

그는 에버러드를 렌터카에 실어 도버로 데려간 뒤 그곳에서 자기 차로 옮겨 태우고는 자신이 잘 아는 숲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이후 냉각실에서 시신을 불태우곤 근처 호수에 유기했다.

유튜브 “백신 ‘가짜뉴스’와 전쟁”

코로나 외 역역 등 모든 승인 백신의 허위 콘텐츠 삭제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가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선다.

유튜브는 29일(현지시간)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역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접종을 승인한 모든 백신에 대해 우리의 의료 가짜뉴스 정책을 확대하고 새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유튜브는 백신이 질병의 감염 및 전염을 낮추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삭제하게 된다. 보건당

국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 자폐, 암, 불임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삭제 대상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 영상에만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홍역을 예방하는 MMR 백신이나 B형 간염 백신 등에 대해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 주장이 전반적인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로 확산하는 것을 꾸준히 목격했다”며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시작한 일을 다른 백신들로 확대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강조했다.

서유럽 최고봉 몽블랑 4년 사이 1m 줄어

전문가들 “지구온난화와 연관성은 더 조사해봐야”

서유럽 최고봉 몽블랑(사진) 공식 높이가 지난 4년 사이 1m가량 줄어들었다.

프랑스 측량 전문가들이 이날 중순 측정한 몽블랑의 높이는 4천807.81m로 2017년 마지막으로 발표된 4천808.72m보다 낮아졌다고 프랑스앵포 라디오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전문가들은 몽블랑 정상에 올라 2시간씩 위성 안테나를 이용해 몽블랑의 높이를 계산했다.

이 높이는 4천792m에서 끝나는 몽블랑의 가장 높은 봉우리와 봉우리를 덮고 있는 얼음층을 합친 것으로 오차범위는 10cm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자리 잡은 몽블랑의 높이는 2007년 4천810.90m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매년 평균 10cm씩



줄어드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기자회견에서 몽블랑의 높이가 줄어드는 이유와 지구 온난화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살펴볼 기후학자, 빙하학자,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우편 집중국

롯데마트

현대 힐스테이트 110동

타임 시티

현대 힐스테이트 101~109

신협

거저씨 교회

보훈 병원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급매 전문

[상가건물]

- 고창 공영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 매가:6억8,000(시세50%)
- ***가든경관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부동산 무엇보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